

제일모직, 수익성 급격히 악화 우려

한국투자증권, 4월 이후 SM 가격상승으로 ... 목표주가 1만6000원선

3월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주가가 4%대 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3월23일 오후 2시40분 현재 제일모직은 전날보다 4.27% 하락한 1만6800원을 기록해 22일 상승분(5.7%)을 상당부분 토해냈다.

제일모직은 전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급등했으나 23일에는 CS FB증권이 매도상위 5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제일모직의 2005년 경영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주가 전망을 다소 어둡게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황규원 애널리스트는 제일모직 탐방보고서를 통해 “2005년 경영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만4000-1만8000원 수준의 매매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일모직이 2004년 영업이익 2329억원을 달성했던 2002년의 최고주가가 1만8450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의견은 <중립>, 목표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1만6000원을 유지했다.

다만, 제일모직의 1/4분기 영업이익은 350억원 안팎으로 2004년 1/4분기의 314억원, 2004년 4/4분기의 233억원(인센티브 90억원 제외) 등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케미칼부문은 SM 가격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5-6월 ABS/PS 정기보수가 예정된 점도 2/4분기 영업실적 악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이 전자재료 부문에서 필름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4년보다 700억원 이상의 설비투자비를 지출해 2005년 배당금 증액 가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3/24>